



구로공단에서



첨단산업으로

시간을 담은
G밸리산업박물관





현재와 과거의 공존은 이질적이면서도 한편으로 특별한 느낌을 준다. 구로에서는 빌딩 숲이 우거진 공간과 위태해 보이는 낡은 건물의 조화가 더는 어색하지 않다. 고층빌딩은 어둠을 밝히는 등대처럼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도 젊은 노동자들의 열정은 그대로다. 구로공단에서 지금의 G밸리까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G밸리산업박물관을 찾았다.

글·사진 김효정

땀과 눈물로 쓴 한국 경제 성장의 역사

M

구로공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산업단지로 한국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노동 집약적 경공업 공장 지구에서는 수많은 노동자의 땀과 열정, 그리고 눈물이 있었다. 이제는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G밸리로 지난날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젊은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미래를 꿈꾼다. 구로구 구로동 G타워 3층에 위치한 G밸리 산업박물관은 구로공단의 탄생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총 4개의 구역으로 구성된 상설전시실에는 1968년 열렸던 한국무역박람회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과 구로공단에서 G밸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알려 주고 있다.

C

S

E

C

M

I

G

나라가 궁핍했던 시절, 경제 성장의 첫 동력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세웠고, 산업단지에서 만든 공업 생산품을 수출해 부를 창출하고자 했다. 가발, 섬유, 봉제, 완구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1971년 1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게 되었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목표로 많은 이들이 산업 발전의 꿈을 꾸었다. 미래를 꿈꿀 여유도 없이 불안 속에 살던 젊은 노동자들은 희망을 품고 구로공단에 터전을 잡았다. 다양한 산업, 그리고 사람이 모인 이곳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충분했다. 1980년대에는 그야말로 황금기였다. 한국 경제는 부흥했고, 전자기기 공업의 발전에 따라 구로공단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듯이, 노동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갔다. 그 시절 여성 노동자들은 벌집촌에서 생활하며 힘들게 번 돈을 집에 보내야 했다. 벌집은 2층 규모의 양옥 안에서 방과 부엌이 붙은 협소하고 획일화된 셋방이 반복된 형태를 말한다. 그들은 2평 남짓한 공간에서 3명이 동거하며 사글세를 아꼈다.





1986년 4월 19일 동아일보에 실린 김 양(23세)의 인터뷰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대변한다.

“거의 매일 잔업하고 1주일에 한 번꼴로 철야 근무를 하지만 월급날은 오히려 발길이 무거워요. 자취방 월세로 3만 원을 내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비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 가슴이 쓰러요.”

여성 노동자들은 하루 9시간에서 12시간 이상 고된 일을 마치고도 비좁은 방에서 발도 뻘이 못하고 잠을 청해야 했다. 밤샘 노동을 감행하고도 임금은 늘 그 자리였다. 저임금과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 쟁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대한민국 무선통신 연표

현재 G밸리산업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오는 3월 15일까지 ‘무선통신 일상을 만들다’展을 진행하고 있으니 함께 관람하면 좋다. 이미 무선통신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기술이 되었다. 지난 60년간 사람과 사람을 이어온 무선통신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전시에서는 무선통신의 기초 원리와 시대별 무선통신 기기, 기술의 발전 등을 소개한다. 1980년대 컬러 화면을 송출한 TV, 카폰과 삐삐의 시대를 거쳐 휴대전화의 대중화까지 통신 강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지난 시절 사용했던 삐삐나 휴대폰을 만나는 감회도 새롭다. 한때는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을 이동통신 기기다. 이 밖에도 한국 통신의 전환점이 되었던 1988년 서울올림픽을 소개하며, 통신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장비 생산의 촉진으로 관련 기업의 성장 등 올림픽이 촉발한 통신 기술의 발전과 활용 상도 확 인할 수 있다.

G밸리산업박물관은 구로공단의 탄생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벌집촌에서 중국 교포의 터전이 된 '엔벤 타운'

이제는 빌딩 숲이 우거진 공간이 되었지만, 구로에는 아직도 지난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진 곳도 있다.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가리봉시장으로 가는 길, 경사진 언덕으로 다닥다닥 붙은 연립주택이 보인다. 허름한 부동산에는 월세를 가감 없이 표기해 근처 매물의 저렴한 시세를 짐작하게 한다. 좁고 오래된 건물을 마주하며 생각한다. 이곳이 바로 1960년대 구로공단 여성 노동자들이 지내던 벌집촌이었을까? 가리봉동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작은 가게를 만날 수 있다. '동네슈퍼'라는 정겨운 이름의 간판을 내걸고 먹거리와 온갖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가게는 오랜 세월, 동네 사람들에게 참 고마운 공간이었을 것이다. 동네슈퍼 근처로는 동네사회와 삼천리연탄, 신일문구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실제로 장사를 하는 곳은 아니고, 가리봉동의 지난날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공간이다. 그 시절 문구사에서는 문구나 완구를 파는 일 외에도 팩스를 보내거나 복사, 코팅, 사진현상까지 하며 사람들의 편의를 도왔다.



무선통신 일상을 만든다 展 전시 전경

걸음을 재촉해 가리봉시장으로 향한다. 가리봉시장은 1976년에 구로구의 전통시장으로 오랜 역사가 있지만, 지금은 시장의 활기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침체된 공간이 되었다. 주말이었는데도 문을 열지 않은 가게도 있었고, 생각만큼 규모도 크지 않았다. 다른 시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중국 식자재를 파는 가게가 대부분이라는 것. 그 덕분에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중국 과자인 월병과 중국의 대표 식품인 휘귀에 들어가는 당면, 중국 술 등 판매대에 가지런히 정돈되어 사람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구로공단 시절에는 공장 직원들이 모여 살았지만, 이제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중국동포의 터전이 되었다. 중국 교포가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곳은 '엔벤 타운'이라 불린다. 중국 현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도 자리하고 있어,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된 중국 음식을 먹으려면 엔벤 타운으로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